

# 2017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전망

요 약 .....	1
I. 머리말 .....	5
I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8
1. 지역별 동향 .....	8
2. 투자형태별 동향 .....	19
II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23
IV.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 .....	28
V. 시사점 .....	31
※ 참고자료 .....	34

---

## 작 성

선임조사역 도현철 (02-3779-6667)  
[loki@koreaexim.go.kr](mailto:loki@koreaexim.go.kr)

---

## < 요약 >

- 본 보고서는 UNCTAD에서 발표한 「World Investment Report 2018」 과 한국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해외직접투자금액은 유출액(outflow), 외국인직접투자는 유입액(inflow)에 해당
- '18년 유출액은 183개국, 유입액은 207개국이 제출한 자료로, 각 나라들의 통계 작성방식의 차이로 유출, 유입 통계의 불일치 발생
- 당행 해투통계는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의 합계 기준이며, UNCTAD 통계는 중앙은행의 국제수지표를 기초로 투자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작성

### 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17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1조 4,300억 달러
  - '17년 중 미국 등의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및 중국의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체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2.9% 감소

#### 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 (유출액 기준)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4	2015	2016	2017	증감율
투자액	21,691	13,737	12,620	16,219	14,733	14,300	△2.9%

- 지역별로는 선진국 투자비중이 70.6%('16년 70.7%), 개발도상국 투자비중이 26.6%('16년 27.6%)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미국은 '15~'16년 유입이 더 많은 순유입국에서, '17년 순유출국으로 전환한 반면 중국은 '16년 순유출국에서 '17년 순유입국으로 전환

#### [직접투자 유출기준]

- (선진국) 국경간 M&A 투자의 급격한 확대 등에 따라 '15~'17년 3년 연속 1조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전년대비 3.1% 감소한 1조 92억 달러
  - 미국이 전년대비 21.9% 증가한 3,423억 달러로 세계 최대 투자유출국을 유지, 일본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1,605억 달러로 2위 차지
- (개발도상국) 중국의 투자유출액이 전년대비 17.3% 감소하면서 아시아 지역 투자유출 감소, 홍콩·한국·아세안에서는 투자유출 증가

-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131개국 중 61개국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17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6.4% 감소

### [직접투자 유입기준]

- (선진국) 유입액은 영국의 EU 탈퇴, 미국의 세제개편 등으로 대규모 M&A 투자가 급감하면서 '17년 7,124억 달러로 전년대비 37.1% 감소
  - 북미지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조세회피 및 계열사간 지분구조 조정 목적의 M&A 투자가 '15~'16년 급증한 결과, 기저효과로 '17년 전년대비 39.0% 감소한 2,996억 달러를 기록
  - 유럽지역은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투자감소(전년대비 1,810억 달러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2% 감소한 3,036억 달러를 기록
- (개발도상국) '17년 개도국 앞 투자유입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6,707억 달러로 '10년 이후 비슷한 수준 유지
  - 중국, 홍콩에 대한 유입액이 전년수준을 유지하면서 아시아 지역 유입액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4,758억 달러를 기록

### [투자형태별<그린필드 및 M&A> 동향]

- '17년 그린필드 투자액과 M&A 투자액 모두 감소
  - 그린필드 투자액은 7,203억 달러(13.6% 감소)를 기록, M&A 투자액은 선진국의 대규모 M&A 감소로 6,940억 달러(21.8% 감소)
  - 그린필드 투자비중이 4년만에 M&A 투자를 상회
    - \* M&A 투자비중 추이 : ('15년) 48.8% → ('16년) 51.6% → ('17년) 49.1%
- (그린필드 투자) 자동차·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14.3% 증가하면서 제조업 투자 비중은 '16년 35.4%에서 '17년 46.9%로 상승
- (M&A 투자) 음식료업, 코크스 및 석유제품 제조업에서 투자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제조업 투자비중은 '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9.0%를 기록

## I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유출) '17년 해외투자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17억 달러 기록
  -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16년 2.0%에서 '17년 2.2%로, 개발도상국 투자유출액 대비 비중은 전년대비 0.9%p 상승한 8.3% 기록
- (투자유입) '17년 중 투자 유입액은 전년대비 40.9% 증가한 171억 달러
  - 세계 투자유입액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16년 0.6%에서 '17년 1.2%로, 개발도상국 투자유입액 대비 비중은 전년대비 0.7%p 상승한 2.5% 기록

### 우리나라 투자 유출·유입 동향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4	2015	2016	2017
투 자 유 출 액	221	283	280	238	300	317
증 가 율	72.9%	62.2%	△1.1%	△15.3%	26.1%	5.7%
투 자 유 입 액	88	95	93	41	121	171
증 가 율	△3.7%	5.3%	△27.4%	△55.7%	194.9%	40.9%

- (지역별)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최근 10여년간 100억 달러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도소매업과 M&A 방식 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 \* 북미 투자(억 달러) : ('10년) 47.0 → ('14년) 70.1 → ('17년) 157.3
- (업종별) 금융보험업, 도소매업이 각각 4년, 3년 연속 전년대비 증가, 부동산업 및 광업, 건설업은 '17년 감소세로 전환
  - 금융보험업의 경우, 최근의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와 국제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 목적 투자액 증가로 '14년 42억 달러에서 '17년 13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동기 해외투자 증가를 견인
- (투자형태별) 우리나라는 '17년 중 그린필드형 52.7%, M&A형 47.3% 비중으로 투자하였으며, M&A 투자는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III.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

- (총 규모) UNCTAD에서는 '18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약 1.5조 달러로 예상
- (지역별) '18년 거시경제의 회복과 투자감소의 기저효과로 유럽과 북미 투자는 각각 15%, 5% 증가할 전망, 아시아는 '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세계직접투자 유입액 현황 및 전망

(억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증감율
선진국	11,410	11,330	7,120	7,400~8,000	5~10%
개발도상국	7,440	6,700	6,710	6,400~6,900	△5~5%
전세계	19,210	18,680	14,300	14,500~15,700	1~10%

- (업종별) 선진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전문서비스업(컨설팅 등), 의약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서는 식음료업, 농업, 정보통신업을 투자유망산업으로 제시

### IV. 시사점

- 우리나라의 '17년말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 비중은 23.1%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해외직접투자의 수익(배당, 이자, 근로소득 등)은 경상수지 내 본원소득을 구성하므로, 해외직접투자 수익성 제고를 통한 본원소득수지 확대 노력 필요
-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시장 진출·선진기술 확보 목적의 M&A 투자와 수익목적의 금융보험업 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전략 재편 필요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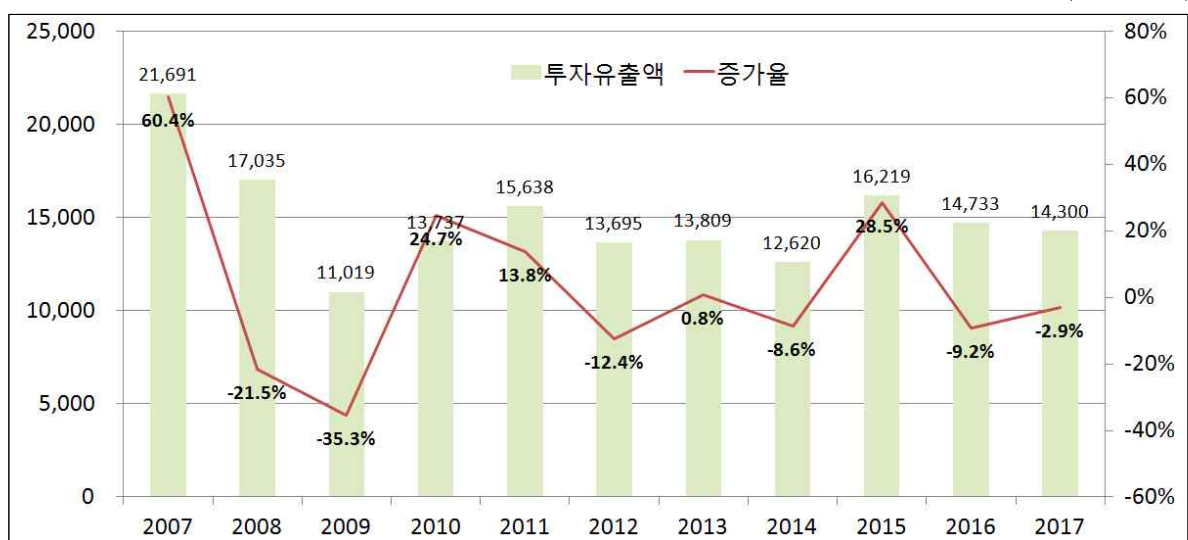
## 머리말

### □ 작성 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17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UNCTAD에서 발표한 「세계투자리포트 2018<sup>1)</sup>」에 따르면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07년 최고치(2.17조 달러)를 기록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 선진국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등락을 시현
- '16~'17년 2년 연속 전반적인 투자액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각각 9.2%, 2.9% 감소한 1.43조 달러를 기록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6~'17년에는 삼성, LG 등 다국적 기업의 투자 증가로 각각 300억 달러, 317억 달러로 사상 최고투자액을 시현

###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추이

(억 달러)



1) 세계투자리포트(World Investment Report 2018)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매년 발간하며, 각국의 통계기관(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계 해외직접투자 통계 및 분석결과를 발표

- 한편, 전세계 총투자액 대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비중은 '07년 1.0%에서 '17년 2.2%로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금액 순위도 '07년 20위에서 '17년 기준 세계 13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우리나라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 동향을 지역별, 업종별, 투자형태별로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 본 보고서 및 분석자료 해석시 유의점

- UNCTAD는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유출액(outflow)과 유입액(inflow)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유출을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지칭함.
- 「세계투자리포트 2018」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에 대해 183개국이 제출한 자료를,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에 대해서는 207개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 동 보고서에 인용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와 차이가 있음.<sup>2)</sup>
  -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수출입은행의 통계는 해외직접투자 송금신고액의 합계금액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음.
  -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으로 구성되며, 직접투자는 투자의 형태를 기준으로 주식, 수익재투자, 채무상품으로 분류.

2)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와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억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UNCTAD	284	280	238	300	317
수출입은행	306	282	298	388	434

- 동 보고서의 유출액(flow)은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 수익재투자(기업의 배당되지 않은 순영업잉여 중 직접투자자의 몫) + 채무상품(직접투자 관계기업 간 자금의 대출 및 차입, 채무증권 거래, 무역신용 등)을 포괄하여 투자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하여 계산.
- 수출입은행의 통계는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 채무상품(직접투자 관계기업 간 자금의 대출 및 차입) + 지점·사무소 영업비용의 투자금액으로 구성되어 투자액을 기준으로 계산.



I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가. 개황

- '17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9% 감소한 1조 4,300억 달러 기록
  - 스위스의 직접투자가 순회수로 전환(874억 달러 감소), 중국의 투자 감소(715억 달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미국 등의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은 '10년 이후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또한, 역대 최고치인 2007년 수준(2조 1,691억 달러)에는 큰 폭 미달

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 추이 (유출액 기준)

(억 달러)

구분	2007	2010	2014	2015	2016	2017	증감율
투자액	21,691	13,737	12,620	16,219	14,733	14,300	△2.9%

- '17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스위스와 중국의 투자액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유입액은 선진국 M&A 감소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선진국 앞 유입액이 전년대비 37.1%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대폭(△23.4%) 감소세를 시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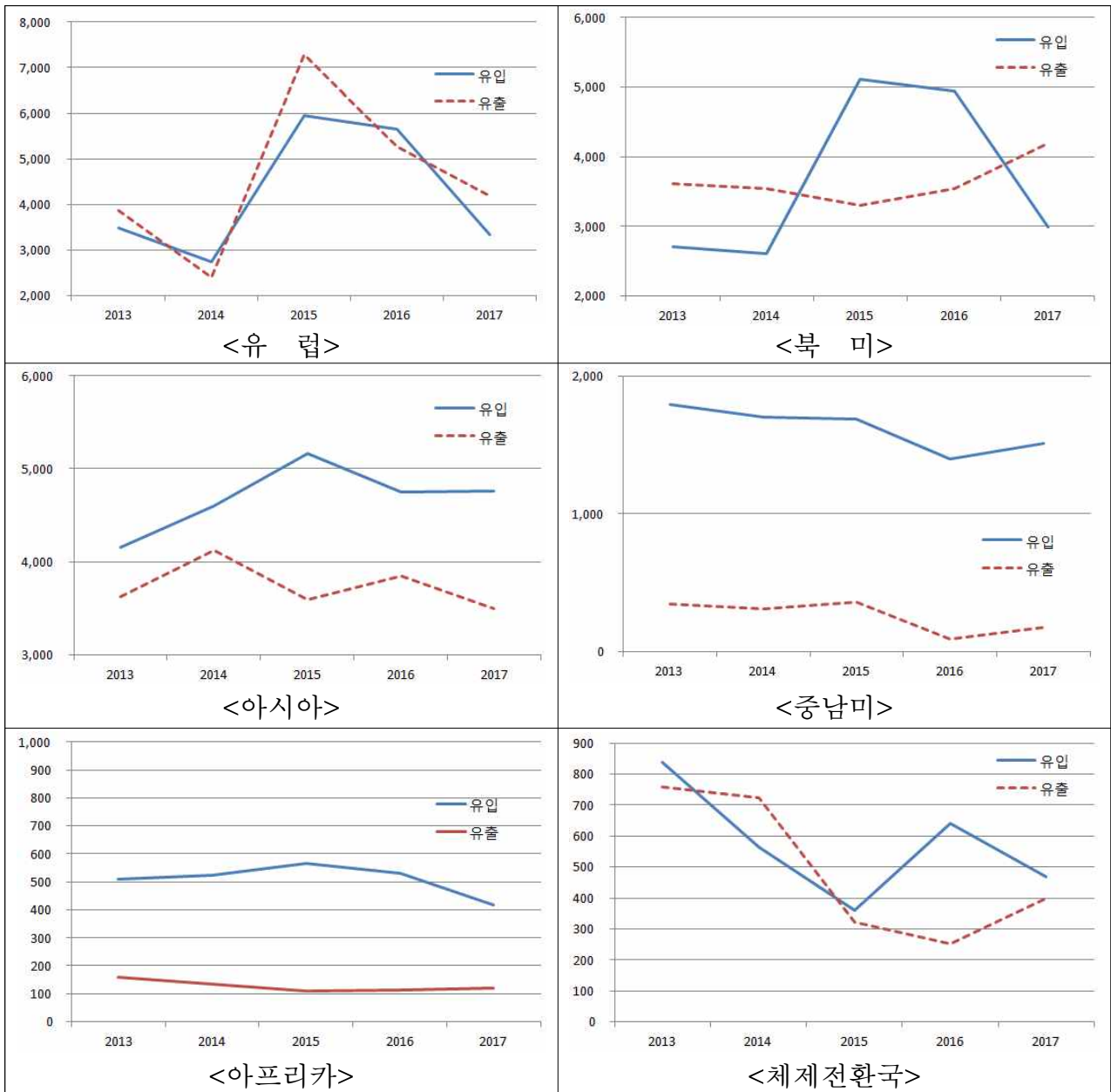
구분	유출액				유입액			
	2015	2016	2017	비중	2015	2016	2017	비중
선진국	11,836	10,415	10,092	70.6	11,413	11,333	7,124	49.8
개발도상국	4,062	4,067	3,808	26.6	7,440	6,702	6,707	46.9
체제전환국	321	252	400	2.8	360	641	468	3.3
합계	16,219	14,733	14,300	100	19,213	18,675	14,298	100

- (선진국)<sup>3)</sup> '15~'16년에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입액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17년에는 선진국 유입액이 크게 감소, 유출액은 '15년 크게 증가한 이후 '16~'17년에는 완만한 하락세

\* 투자비중(유출) : ('15년) 73.0% → ('16년) 70.7% → ('17년) 70.6%

###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억 달러)



3) WIR에서는 EU 28개국, 비EU 유럽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지브롤터), 캐나다, 미국, 호주, 버뮤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를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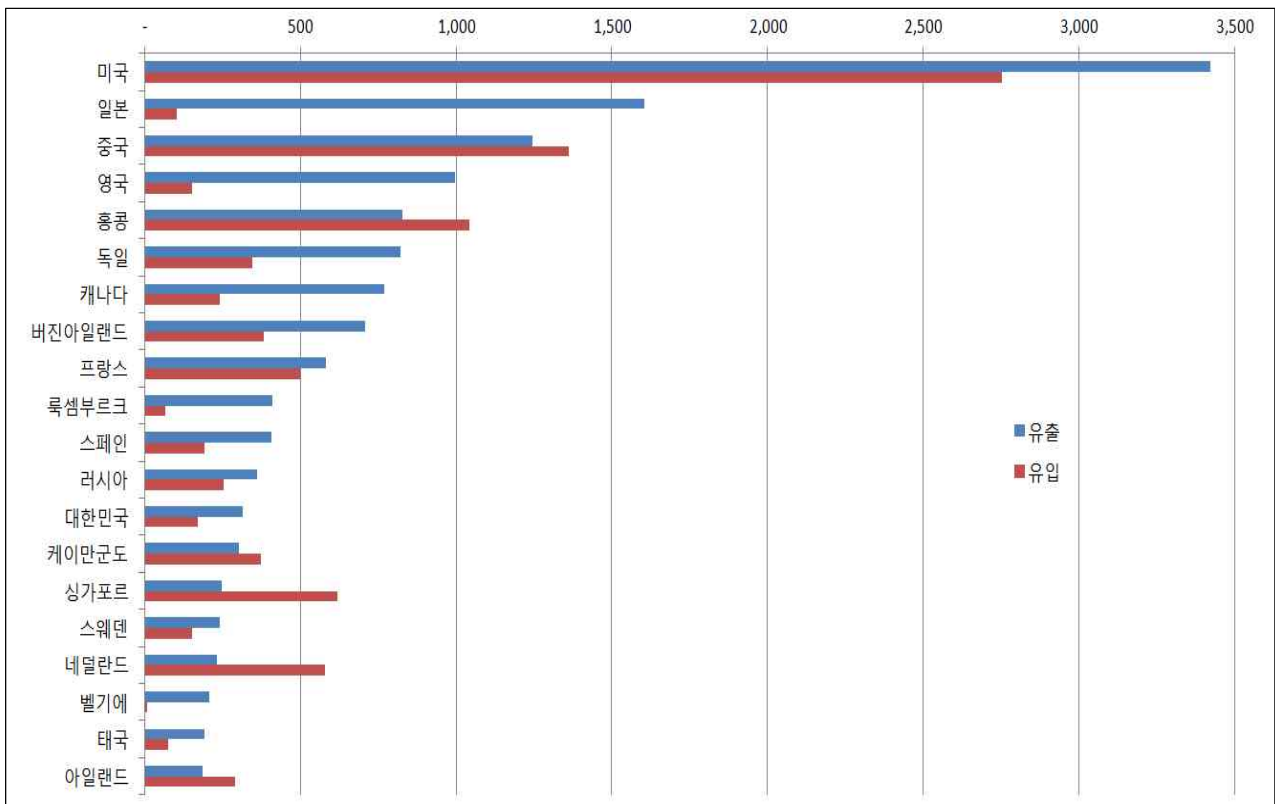
- (개발도상국)<sup>4)</sup> 태국, 인도 등의 투자 유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투자 감소(715억 달러)의 영향으로 유출은 '17년 전년대비 6.4% 감소하였으나, 유입액은 전년대비 큰 변화 없이 0.1% 증가

\* 투자비중(유출) : ('15년) 25.0% → ('16년) 27.6% → ('17년) 26.6%

- (체제전환국)<sup>5)</sup>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등 CIS 지역에 대한 유입액이 32.0% 감소하였으나, 유출액은 61.0% 증가하면서 가장 큰 변동폭을 나타내고 있음.

### '17년도 해외직접투자 상위 20대(유출액 기준) 국가의 유출입액

(억 달러)



- 미국은 '15~'16년에는 유입이 더 많은 순유입국이였으나, '17년에는 유입액이 전년대비 39.8%(1,817억 달러) 감소하면서 순유출국으로 전환하였으며, 중국은 '16년 순유출국에서 '17년 유출액 감소(715억 달러)의 영향으로 순유입국으로 전환하였음.

4)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포함

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마케도니아, 조지아, 알바니아, 코소보, CIS 11개국(러시아 포함)을 지칭

- '17년부터 미국 금리 인상과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축소 전망,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투자불안으로 선진국간 M&A투자와 개도국 그린필드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개도국 시장 확보를 위한 M&A 투자는 3년('15~'17) 연속 증가
- 일본과 한국은 지속적인 순유출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국제분업화와 동반한 제조업 투자와 금융보험업의 순유출 비중 상승

## 나.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 1) 선진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07년 최대 유출액(1.8조 달러) 기록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14년까지 투자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15~'17년에는 국경간 M&A 투자의 급격한 확대 등에 따라 3년 연속 1조 달러를 상회

#### 최근 10년간 유출액 추이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5	2016	2017
선진국	18,439	9,659	11,836	10,415	10,092
북미	4,582	3,125	3,304	3,542	4,193
유럽	12,884	5,687	7,282	5,264	4,178
기타	974	847	1,250	1,608	1,722
세계전체 대비 선진국 비중	85.0%	70.3%	73.0%	70.7%	70.6%

- 선진국 38개국 중 총 18개 국가에서 전년대비 투자가 증가하고 20개국에서 감소하였으며,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총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1조 92억 달러를 기록

### 유출액 규모별 투자국 분포

유출액 규모	국 가 명
1,000억 달러 초과	미국, 일본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100억 달러 ~ 500억 달러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 □ 지역별 동향

- (북미) 미국의 해외투자 부진 영향으로 '11년도 4,487억 달러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17년도 유출액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4,193억 달러를 기록
  - (미국) '11년도 3,966억 달러에서 '12년 이후는 3천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7년에는 전년대비 21.9% 증가한 3,42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세계 최대 투자유출국 지위를 유지
    - \* 투자액 추이(달러) : ('15년) 2,626억 → ('16년) 2,807억 → ('17년) 3,423억
  
- (유럽) '07년 1조 2,883억 달러 기록 이후 유럽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14년 2,403억 달러까지 투자액은 감소하였으나, 제약·화학업종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M&A 투자 확대로 '15년 유출액은 7,282억 달러를 시현, '17년에는 2년 연속 감소한 4,178억 달러를 기록
  - '17년 유럽국가 중 영국, 독일, 프랑스가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
  
- (기타 국가) 일본의 투자확대로 전년대비 7.1% 상승한 1,721억 달러 기록
  - (일본) 일본계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7년간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출액을 기록 중이며, '17년도 유출액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1,605억 달러로, 사상최고 투자유출액을 기록하면서 세계 2위 투자유출국의 지위를 차지
    - \* 투자액 추이(달러) : ('15년) 1,342억 → ('16년) 1,452억 → ('17년) 1,605억

## 2)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131개국 중 61개국에서 전년대비 투자유출이 증가하였으며 '17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6.4% 감소한 3,808억 달러를 기록

### 최근 10년간 유출액 추이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5	2016	2017
개발도상국	2,760	3,573	4,062	4,067	3,808
아시아	2,402	2,919	3,587	3,847	3,502
중남미	249	543	356	93	173
아프리카	108	104	108	112	121
기 타	1	7	10	14	12
세계전체 대비 개도국 비중	12.7%	26.0%	25.0%	27.6%	26.6%

- 중국, 홍콩, 버진아일랜드, 대한민국, 케이만군도, 싱가포르, 태국 7개국이 세계 20대 투자국에 포함되어 '16년(6개국) 대비 태국이 추가

### 유출액 규모별 투자국 분포

유출액 규모	국 가 명
1,000억 달러 초과	중국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	홍콩, 버진아일랜드(영국령)
100억 달러 ~ 500억 달러	러시아, 대한민국, 케이만군도, 싱가포르 등

## □ 지역별 동향

- (아시아) '13~'14년 선진국 지역을 포함하여 최대 투자유출지역으로 부상했던 개도국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계 다국적기업의 투자 감소 등으로 '17년은 북미, 유럽에 이은 3위를 기록
- (동아시아) 중국의 투자유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17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17.3% 감소한 2,502억 달러를 기록

- (중국) '17년 유출액은 미국 등 선진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M&A 투자가 일단락됨에 따라 전년대비 36.5% 감소한 1,246억 달러를 시현, 전년도 2위에서 세계 3위 투자국으로 1단계 하락

\* 투자액 추이(달러) : ('15년) 1,457억 → ('16년) 1,962억 → ('17년) 1,246억

- (홍콩) '14년 다국적기업의 M&A 투자 활성화로 역대 최고치인 1,24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5~'16년 2년 연속 유출액이 하락, '17년에는 전년대비 38.8% 증가한 828억 달러를 시현하면서, 세계 5위 투자유출국 기록

\* 투자액 추이(달러) : ('15년) 718억 → ('16년) 597억 → ('17년) 828억

- (한국) '17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1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대비 선진국에 대한 M&A 투자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투자액 추이(달러) : ('15년) 238억 → ('16년) 300억 → ('17년) 317억

- (남아시아) 주요 투자국인 인도의 국영석유회사 ONGC가 러시아와 영국이 소유한 유전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유출투자액은 전년대비 110.9% 증가한 116억 달러를 기록

- (아세안) 전통적인 주요 투자국인 싱가포르(247억 달러)의 투자 감소(△11.6%)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아세안 역내 투자 증가('17년 193억 달러, 전년대비 55.3% 증가)로 전년대비 41.24% 증가한 550억 달러를 시현

- (중남미) 브라질 및 멕시코 경기 하락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유출액은 '17년 전년대비 85.6% 증가한 173억 달러를 시현하였으나, '13~'15년 평균 338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아프리카) 원자재 가격 하락, 주요 무역국과의 교역량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유출투자 확대('17년 74억 달러, 전년대비 64.5% 증가)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121억 달러를 기록

### 3) 체제전환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주투자자인 러시아의 투자가 루블화 가치 하락 및 저유가 지속 등으로 '15~'16년 크게 감소, '17년에는 360억 달러로 전년대비 33.7% 증가하였으나, '14년 642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

## 다.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 1) 선진국의 투자유입 동향

- (유입액) '07년 1조 2,84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4년 5,967억 달러까지 침체되었던 유입액은 선진국 경기회복, 대규모 M&A 투자 활성화 등으로 '15~'16년 2년 연속 1조 1천억 달러대로 회복하였으나, '17년에는 대규모 M&A 감소의 영향으로 7,124억 달러로 전년대비 37.1% 감소
- 세계 전체 유입액 중 선진국 비중 또한 '15년 59.4%에서 '16년 60.7%, '17년 49.8%를 차지하며 개발도상국 비중(37.0%)을 3년 연속 상회하였으나, 선진국 비중은 감소

#### 최근 10년간 유입액 추이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5	2016	2017
선진국	12,842	6,798	11,413	11,333	7,124
유럽	8,744	4,106	5,952	5,649	3,337
북미	3,328	2,265	5,134	4,944	2,996
기타	770	428	347	734	790
세계전체 대비 선진국 비중	67.8%	49.5%	59.4%	60.7%	49.8%

### □ 지역별 동향

- (유럽) EU 28개국에 대한 유입액은 영국 EU 탈퇴예정에 따른 영향으로 영국(151억 달러, 92% 감소)에 대한 투자가 급감, 프랑스에 대한 투자유입액이 146억 달러 증가하였음에도 전년대비 42% 감소한 3,0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전체 유입액 중 21.2%를 차지
-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15~'16년 조세회피\*(Tax Inversion) 및 기업 계열사간 지분구조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 국경간 M&A 투자가 급증, '17년에는 기저효과로 미국에 대한 유입액은 전년대비 40% 감소한 2,754억 달러를 기록

\*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본사 해외이전 등



- (일본) 유럽계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 등으로 '15년 33억 달러로 감소했던 유입투자액은 '17년 104억 달러까지 회복

## 2)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입 동향

- (유입액) '17년 개도국 앞 투자유입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6,707억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세계 전체 유입액 대비 비중의 경우 '15~'16년 중 선진국 앞 유입액이 급증함에 따라 개도국 비중은 각각 38.7%, 35.9%를 기록
  - 개도국 앞 유입액은 '10~'17년 평균 6,703억 달러로 정체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진국 앞 유입액은 대형 M&A 거래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17년 유입투자액은 전년대비 0.1% 상승에 그쳤으나, 세계 전체 유입액 대비 비중은 '16년 35.9%에서 '17년 46.9%로 크게 상승

### 최근 10년간 유입액 추이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5	2016	2017
개발도상국	5,224	6,285	7,440	6,702	6,707
아시아	3,532	4,129	5,164	4,754	4,758
중남미	1,169	1,668	1,692	1,397	1,513
아프리카	512	467	566	532	418
기 타	12	21	18	19	17
세계전체 대비 개도국 비중	27.6%	45.8%	38.7%	35.9%	46.9%

### □ 지역별 동향

- (아시아) 중국, 홍콩 등에 대한 유입액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17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0.1% 증가한 4,758억 달러로 최근 5년('13~'17)간 평균 4,686억 달러 수준을 유지
  - (동아시아) 한국과 몽골에 대한 유입은 증가하였으나, 대만 유입이 감소하고, 중국과 홍콩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유입액은 전년대비 2.0% 감소

- (중국 및 홍콩) 세계직접투자 유입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도국 중 최다 투자유입국, 미국에 이은 전세계 투자유입국 2위를 기록
- 중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수는 '17년 35,650개사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하이테크 분야(전자, 의료, 통신, 컴퓨터 등) 유입투자액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400억 달러를 기록
- 홍콩에 대한 유입액은 '17년 전년대비 2.0% 증가한 1,043억 달러를 기록, 다국적 기업들의 아시아 지역본부 역할을 담당하는 홍콩에 대한 투자유입액은 8년 연속 1천억 달러를 상회
- (한국) M&A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17년 전년대비 41% 증가한 170억 달러의 투자유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남아시아) 인도에 대한 투자유입 감소의 영향으로 이란에 대한 투자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0% 감소한 520억 달러를 기록
  -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인 투자개방 정책으로 '17년 전년대비 488.2% 증가한 231억 달러의 투자유입액을 기록, 싱가포르 등의 유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입액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1,338억 달러를 기록
- (중남미)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5년 연속 투자유입액이 감소하였으나, '17년에는 원자재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한 1,513억 달러의 투자유입
  - (중미) 무역량 위축에 따른 투자유입액 정체로 중미 지역의 투자유입액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421억 달러를 시현. 멕시코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297억 달러를 기록
  - (남미) 원자재에 대한 투자심리가 소폭 회복하면서 '17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1,042억 달러를 기록. 한편, 주요 투자유입국인 브라질의 경우 전기, 석유, 가스운송업 등을 중국 등의 기업에 매각함에 따라 에너지 부문 투자유입액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26억 달러를 시현

- (아프리카) 이집트 등의 북아프리카 지역과 서부아프리카 지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유입액을 기록(전년대비  $\Delta 4.0\%$ )하였으나, 자원의존도가 높은 사하라 이남(앙골라 등) 지역의 전반적인 투자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1.5% 감소한 418억 달러 기록

### 3) 체제전환국의 투자유입 동향

- (유입액) 러시아(32.0% 감소) 및 카자흐스탄(42.8% 감소)에 대한 유입액 감소로 유입액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17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27.1% 감소한 468억 달러를 기록

## 2. 투자형태별(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해외직접투자 동향

### 가. 개 황

□ '17년 그린필드 투자액과 M&A<sup>6)</sup> 투자액 모두 감소

- 그린필드 투자액은 전년대비 13.6% 감소한 7,20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M&A 투자액은 선진국의 대규모 M&A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1.8% 감소한 6,940억 달러를 시현함.

투자형태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유출액<sup>7)</sup> 기준)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5	2016	2017	증감율
그린필드	7,894	8,298	7,720	8,333	7,203	△13.6%
M&A	10,327	3,471	7,351	8,869	6,940	△21.8%
합 계	18,221	11,769	15,071	17,202	14,143	△17.8%

-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중 M&A 투자 비중<sup>\*</sup>은 '13~'15년 간 연속 상승하였으나, '17년에는 그린필드 투자비중이 50.9%로 M&A 투자를 상회

\* M&A 투자비중 추이 : ('15년) 48.8% → ('16년) 51.6% → ('17년) 49.1%

- 미국을 선두로 하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감소 전망의 영향으로 M&A 대형투자가 급감하면서 M&A 투자 비중 하락

### 나. 지역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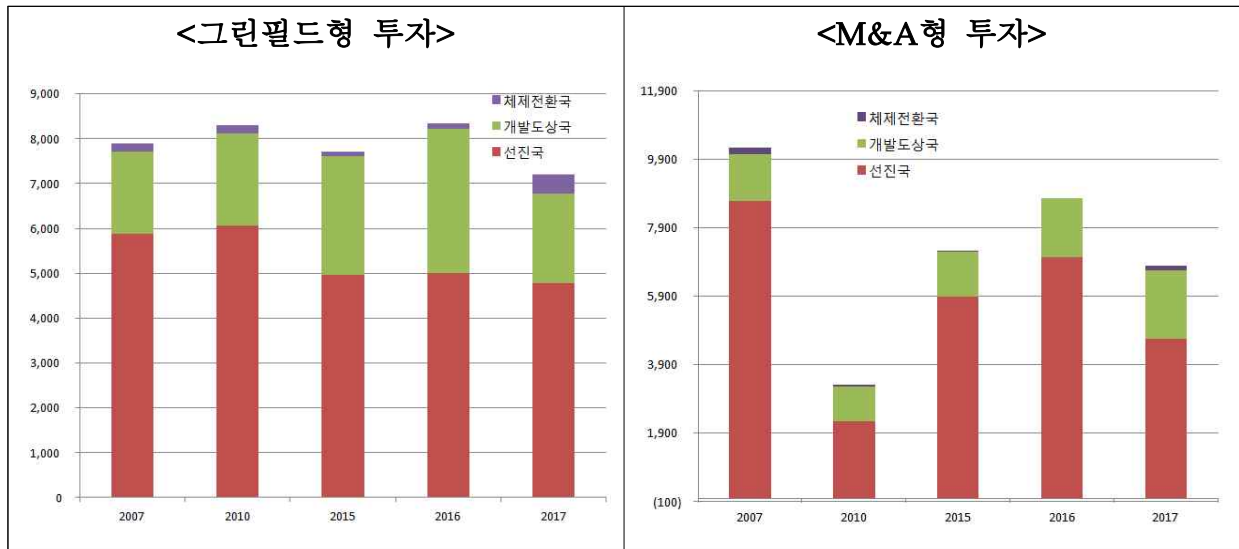
□ '17년 지역별 M&A 투자금액 비중은 선진국(66.9%), 개발도상국(29.0%) 순으로 높았음.

- 선진국 M&A 투자의 경우 SABMiller(영국, 1,015억 달러) 매각 건으로 영국이 전년대비 549% 증가한 1,282억 달러를 시현하였으나, 벨기에(△1,098억 달러), 아일랜드(△737억 달러), 네덜란드(△1,279억 달러) 등의 급격한 감소로 선진국 M&A 비중은 '16년 79.4%에서 '17년 66.9%로 감소

6) 각국내 M&A를 제외한 국경간 M&A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7) 대외공시된 총 예상투자액으로 미공시 투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송금액보다 과다하게 집계되는 경향

## 투자형태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구성 추이



- (그린필드 투자) '17년 중 투자유출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 (1,194억 달러), 독일(602억 달러), 중국(541억 달러) 3개국임.

### 지역별 그린필드 투자금액 현황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5	2016	2017	증감율
선진국	5,877	6,058	4,967	5,012	<b>4,784</b>	△4.6%
개발도상국	1,839	2,055	2,638	3,217	<b>1,994</b>	△38.0%
체제전환국	179	185	114	104	<b>426</b>	309.4%
합계	7,894	8,298	7,720	8,333	<b>7,203</b>	△13.6%

- 투자유입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945억 달러), 중국(534억 달러) 2개국으로, 미국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유입이 전년대비 62.4% 증가하면서 투자유입규모가 감소한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투자유입 1위를 기록
- (M&A 투자) '17년 투자유출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중국(1,309억 달러), 영국(1,282억 달러), 미국(1,153억 달러), 캐나다(728억 달러), 일본(654억 달러) 등 5개국으로 '16년의 7개국 대비 감소

### 지역별 M&A 투자금액 현황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5	2016	2017	증감율
선진국	8,676	2,248	5,875	7,038	<b>4,640</b>	△34.1%
개발도상국	1,369	1,004	1,312	1,711	<b>2,013</b>	17.6%
체제전환국	184	54	45	△8	<b>140</b>	순증전환
기타	98	166	120	128	<b>148</b>	15.4%
합계	10,327	3,471	7,351	8,869	<b>6,940</b>	△21.8%

- '17년 M&A 투자유입액이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3,089억 달러)과 스위스(744억 달러) 2개국이며, 미국이 3년 연속('15~'17) M&A 투자유입 1위를 차지

#### 다. 업종별 동향

- (그린필드 투자) 자동차·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14.3% 증가하면서 제조업 투자 비중은 '16년 35.4%에서 '17년 46.9%로 상승
- (M&A 투자) 음식료업, 코크스 및 석유제품 제조업에서 투자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제조업 투자비중은 '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9.0%를 기록

#### '17년 투자형태별·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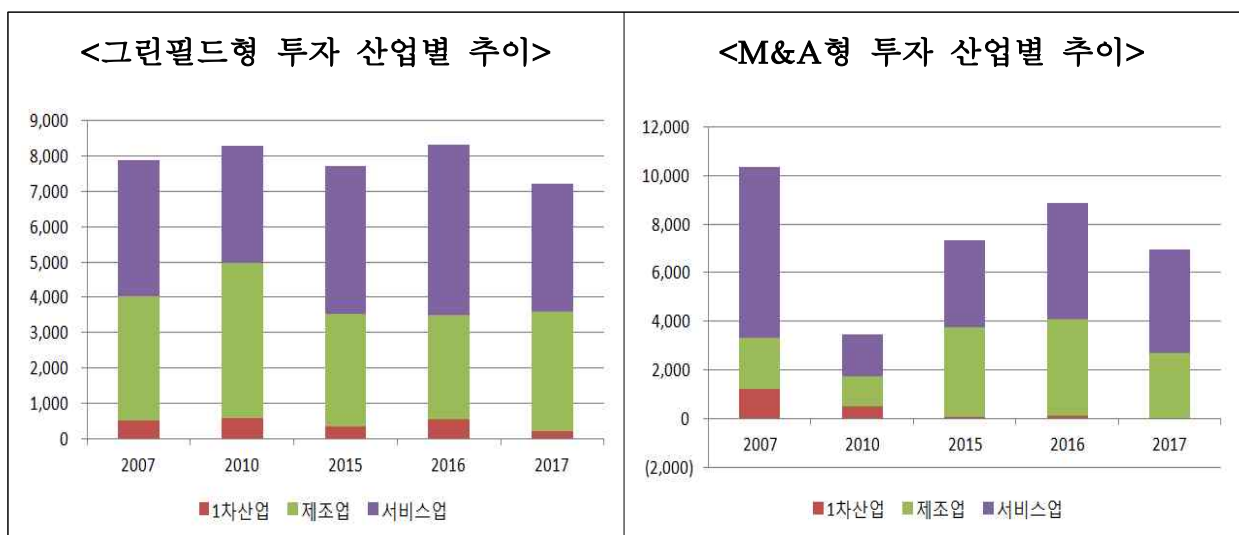
(억 달러, %)

구 분	그린필드 투자			M&A 투자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금액	208	3,377	3,619	△22	2,708	4,253
(비 중)	2.9%	46.9%	50.2%	△0.3%	39.0%	61.3%
(증가율)	△61.4%	14.3%	△25.3%	-	△32.0%	△11.3%
투자건수	63	7,678	8,186	115	1,413	5,439
(비 중)	0.4%	48.2%	51.4%	1.7%	20.3%	78.1%
(증가율)	21.2%	△0.3%	2.2%	△26.8%	△3.6%	9.1%

□ 세부 업종별 동향

- (1차 산업) '03년 광업투자 증가로 1차 산업의 투자비중은 23.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7년에는 원자재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그린필드(208억 달러, 2.9%), M&A(△22억 달러, △0.3%)투자 모두 전년 대비 감소
- (제조업) 그린필드(3,377억 달러, 14.3% 증가) 및 M&A(2,708억 달러, 32.0% 감소)로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액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M&A 투자액은 국제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크게 감소
  - 그린필드 투자는 전반적으로 확대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M&A 투자의 경우 '16년 SABMiller(영국) 인수건(약 1,015억 달러)등의 기저효과로 음식료업이 전년대비 38.0% 감소, 코크스 및 석유제품 제조업이 115.2% 감소
- (서비스업) 그린필드(3,619억 달러) 및 M&A(4,253억 달러) 투자금액 모두 전년대비 각각 25.3%, 11.3% 감소
  -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전기·수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M&A 투자는 전기·수도, 건강·의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감소

투자형태별·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 Ⅲ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유출) 우리나라의 '17년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317억 달러를 기록<sup>8)</sup>
- 우리나라 투자 유출액의 세계 전체기준 순위(13위) 및 비중(2.2%)은 전년대비 순위는 유지, 비중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전체 유출액 대비 비중은 전년(7.4%) 대비 0.9%p 상승한 8.3%를 기록
- 전세계 해외직접투자는 '07년 역대 최고치(2조 1,691억 달러) 이후 1조 5천억 달러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8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2년 연속('16~'17) 300억 달러를 초과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4	2015	2016	2017
투 자 액	221	283	280	238	300	317
증 가 율	72.9%	62.2%	△1.1%	△15.3%	26.1%	5.7%
세 계 비 중	1.0%	2.1%	2.2%	1.5%	2.0%	2.2%
개발도상국 비중	8.0%	7.9%	6.1%	5.8%	7.4%	8.3%
세 계 순 위	20	16	15	19	13	13

- (투자유입) 우리나라의 '17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121억 달러)대비 40.9% 증가한 171억 달러를 기록<sup>9)</sup>

8) UNCTAD 통계기준 자료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수지 금액에 수익재투자 등을 반영한 금액임.

9) 투자 회수금 등을 반영한 순투자금액으로 산업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송금신고액 기준)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UNCTAD 통계와 산업자원부 통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억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UNCTAD	128	93	41	121	171
산업자원부	99	122	166	108	134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억 달러)

구 분	2007	2010	2014	2015	2016	2017
유 입 액	88	95	93	41	121	171
증 가 율	△3.7%	5.3%	△27.4%	△55.7%	194.9%	40.9%
세 계 비 중	0.5%	0.7%	0.7%	0.2%	0.6%	1.2%
개발도상국 비중	1.7%	1.5%	1.4%	0.6%	1.8%	2.5%
세 계 순 위	40	29	30	44	28	22

- (지역별 동향<sup>10</sup>)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최근 10여년간 100억 달러 수준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가 도소매업과 M&A 방식 투자를 중심으로 '16년부터 커다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10년간 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백만 달러)

구 분	2007	2010	2014	2015	2016	2017
북 미	3,763	4,690	7,012	7,438	14,784	15,731
아 시 아	12,064	10,171	9,028	10,515	10,781	12,203
중 남 미	1,292	2,243	4,389	5,531	6,046	6,998
유 럽	4,470	6,222	4,239	3,393	4,382	6,826
전 체	24,086	25,342	28,187	29,786	38,781	43,445

-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최대 해외투자국은 미국(736억 달러, 투자비중 24.6%)으로 중국과 홍콩을 합산한 규모(539억 달러, 투자비중 18.0%)보다 크며,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10) 우리나라의 지역별·업종별·투자형태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수출입은행이 작성하는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투자액은 유출액, 투자대상국은 최종투자대상국을 기준으로 작성함.

최근 10년간('08~'17) 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백만 달러)

구 분	2008	2010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미 국	4,952	3,597	6,072	6,790	13,645	15,585	73,619
중 국	5,009	4,634	3,852	5,147	4,290	5,060	47,896
베 트 남	1,414	966	1,622	1,601	2,517	2,109	14,311
호 주	579	564	1,729	961	1,318	1,041	13,367
영 국	181	3,284	444	287	334	1,354	9,801

- (업종별 동향) '17년 금융보험업, 도소매업이 각각 전년대비 43.8억 달러, 37.8억 달러 증가하여, 부동산업 △24.4억 달러, 광업 △11.9억 달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해외투자규모는 전년대비 46.6억 달러 증가
- 금융보험업의 경우 최근의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와 국제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 목적 투자액 증가로 '14년 42억 달러에서 '17년 13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여 동기 해외투자 증가의 주원인을 차지

최근 10년간('08~'17)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백만 달러)

구 분	2008	2010	2014	2015	2016	2017
제 조 업	6,883	7,582	7,424	7,730	8,010	7,701
금 용 보 험 업	3,756	3,777	4,239	6,822	9,216	13,597
부 동 산 업	1,618	2,119	3,533	4,319	6,049	3,604
도 소 매 업	4,112	1,480	1,670	2,215	5,784	9,561
광 업	4,164	7,581	6,046	3,507	2,791	1,598
전 체	24,086	25,342	28,187	29,786	38,781	43,445

- 최근 10년간 금융보험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 등의 서비스업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조업 및 1차 산업 투자는 정체 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제조업 1, 2위 투자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중국 앞 투자가 정체 되고, 베트남 앞 투자는 증가하면서 '16년 베트남의 제조업 투자는 중국의 72%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17년에는 65.2%로 격차 폭이 증가

최근 10년간 제조업의 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백만 달러)

구	분	2008	2010	2014	2015	2016	2017
중	국	2,521	2,771	2,575	2,378	2,451	2,135
베	트	699	470	1,025	1,145	1,766	1,392
미	국	1,077	461	710	830	839	735
인	도	140	155	299	230	233	401
멕	시	137	39	236	901	414	365

- (투자유형별 동향) '17년중 그린필드형 투자는 229억 달러, M&A 투자는 20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7년 M&A 투자 비중이 47.3%를 나타내면서 최근 M&A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M&A 투자비중(%) : ('08) 31.4 → ('10) 30.8 → ('15) 27.8 → ('16) 39.7 → ('17) 47.3

최근 10년간 설립형태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백만 달러)

구	분	2008	2010	2014	2015	2016	2017
신	규	16,513	17,532	20,175	21,497	23,395	22,905
기	존	7,572	7,809	8,012	8,289	15,385	20,540
합	계	24,086	25,342	28,187	29,786	38,781	43,445

- 한편, M&A 투자의 경우 도소매업,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지속

최근 10년간 M&A형 해외직접투자 추이

(백만 달러)

구	분	2008	2010	2014	2015	2016	2017
도	소	1,894	481	671	1,127	4,238	7,718
금	용	710	722	1,243	1,689	3,226	6,384
제	조	1,777	1,120	1,283	1,793	1,787	1,988
부	동	873	132	1,487	1,886	2,561	1,480
운	수	22	63	448	43	671	1,140
전	체	7,572	7,809	8,012	8,289	15,385	20,540

## UNCTAD FDI 통계의 경유 자본(transit FDI) 처리

□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s)\* 및 SPE(Special Purpose Entities)를 이용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함에 따라, 경유자본으로 인한 투자 금액의 이중집계, 투자흐름 왜곡 등의 현상이 발생

\* 역외금융센터란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의 국가들로서, 금융·외환 등의 거래에 대해 조세 등의 규제를 면제·축소해 줌으로써 비거주자간 금융거래의 중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통칭

○ 이에, UNCTAD FDI 통계에서는 역외금융센터 및 SPE 관련 수치를 제거한 통계수치 사용

#### IV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sup>11)</sup>

- (총투자규모) '18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대비 5% 증가하여 약 1.5조 달러로 전망
- 「세계투자리포트 2018」에 따르면, '18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유입액 기준)은 전년대비 약 5% 증가한 약 1.5조 달러로 예상, 세계경제 경기 상승 기조, 세계교역량 확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할 전망
  - 다만, 이란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무역분쟁 및 보호주의 정책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우려가 글로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18년 예정된 미국의 세제 개혁이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정책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세계직접투자 유입액 현황 및 전망

(억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증감율
선진국	11,410	11,330	7,120	7,400~8,000	5~10%
유럽	5,950	5,650	3,340	~3,800	~15%
북미	5,110	4,940	3,000	~3,200	~5%
개발도상국	7,440	6,700	6,710	6,400~6,900	△5~5%
아프리카	570	530	420	~500	~20%
아시아	5,160	4,750	4,760	~4,700	~0%
중남미	1,690	1,400	1,510	~1,400	~△5%
체제전환국	360	640	470	500~600	~20%
전세계	19,210	18,680	14,300	14,500~15,700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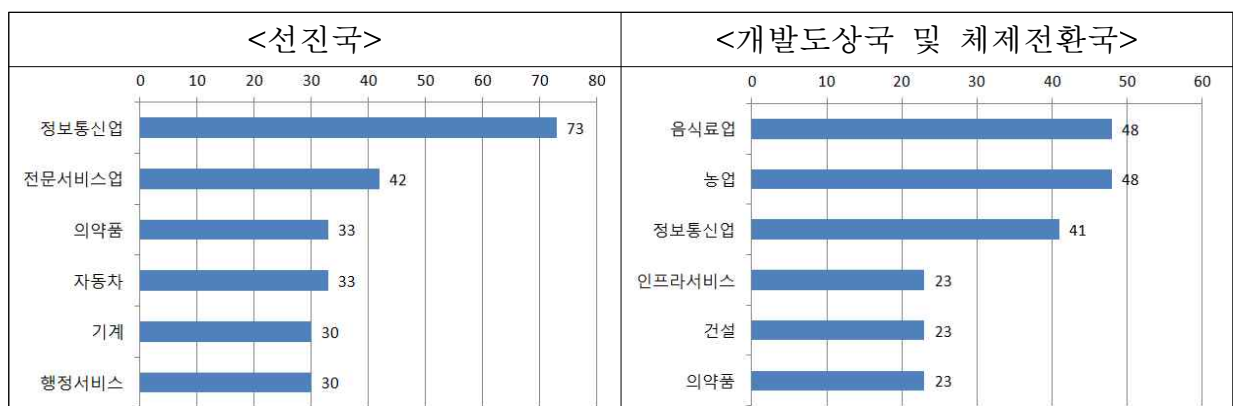
- (선진국) '18년 투자 유입액은 7,400~8,0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거시경제의 회복과 투자감소의 기저효과로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는 15%, 북미 투자는 5% 회복할 전망

11) 「세계투자리포트 2017」에서는 「UNCTAD's Business Survey」 결과 및 UNCTAD 자체모형 예측 수치를 기반으로 해외직접투자 전망(유입액 기준)을 작성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전망 부분도 「세계투자리포트 2017」의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개발도상국) '18년 아시아 지역 앞 투자유입액은 4,700억 달러로 정체 될 것으로 보이나, 아프리카는 20% 성장, 중남미와 체제전환국은 각각 5% 감소,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18년 해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4,700억 달러로 '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새로운 투자 자유화 정책과 아세안내 저소득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한 투자 증가를 기대
  - (중남미) 미국 보호주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 및 경기 불황 등으로 '18년 투자유입액은 전년대비 약 5% 감소한 1,4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
  - (아프리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회복세와 거시경제에 대한 기대감 및 아프리카대륙FTA(AfCFTA) 진전 등으로 '18년 투자 유입액은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50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
- (체제전환국) 경기침체의 바닥효과와 국제유가의 상승, 러시아의 거시 경제 안정성 상승 등으로, '18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55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나,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
- (업종별) 선진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전문서비스업(컨설팅 등), 의약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투자유망업종으로 전망되며,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서는 식음료업, 농업, 정보통신업, 사회인프라 관련 유틸리티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기대

### 지역별 투자유망산업 전망

(%)



- (지역별) 주요 다국적기업의 임원 앞 설문조사에 따르면 '18년에는 80% 이상의 기업이 투자를 늘릴 계획이며, 관심지역은 선진국 앞 투자가 29%, 아시아 21%, 중남미 20% 순으로 응답
- (주요 산업) 금융보험업은 주로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경공업 및 소비재 기업은 개발도상국을 주요 투자시장으로 선정

- 우리나라의 '17년말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대 GDP 비율은 23.1%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EU 61.4%, 미국 40.2%, 일본 31.2%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격차는 감소 경향
  -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대 GDP 비율은 '07년 6.7%에서 '17년 23.1%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7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sup>12)</sup>는 84.0%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해외직접투자 잔액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무역의존도가 20~3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지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M&A 목적의 해외진출은 지속적인 확대 전망
- 해외직접투자는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본원소득수지<sup>13)</sup> 항목 중 직접투자 소득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국 투자자 앞 배당금, 대부이자액, 한국인 노동자 임금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
  -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의 직접투자 소득수입은 '08년 28억 달러에서 '17년 9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나,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대한 지급액이 상회하면서 '17년 직접투자소득수지는 △24억 달러 적자를 시현
  - 최근 5년간 평균 한, 미, 일 3국의 해투잔액 대비 본원소득수입 비율은 각각 9.3%, 12.7%, 20.4%이며, '17년 대한민국의 본원소득수입 비율은 6.9%로 일본의 17.9%, 미국의 11.9% 대비 낮은 수준
-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본원소득수입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해외투자의 정책지원과 제도개선을 해외직접투자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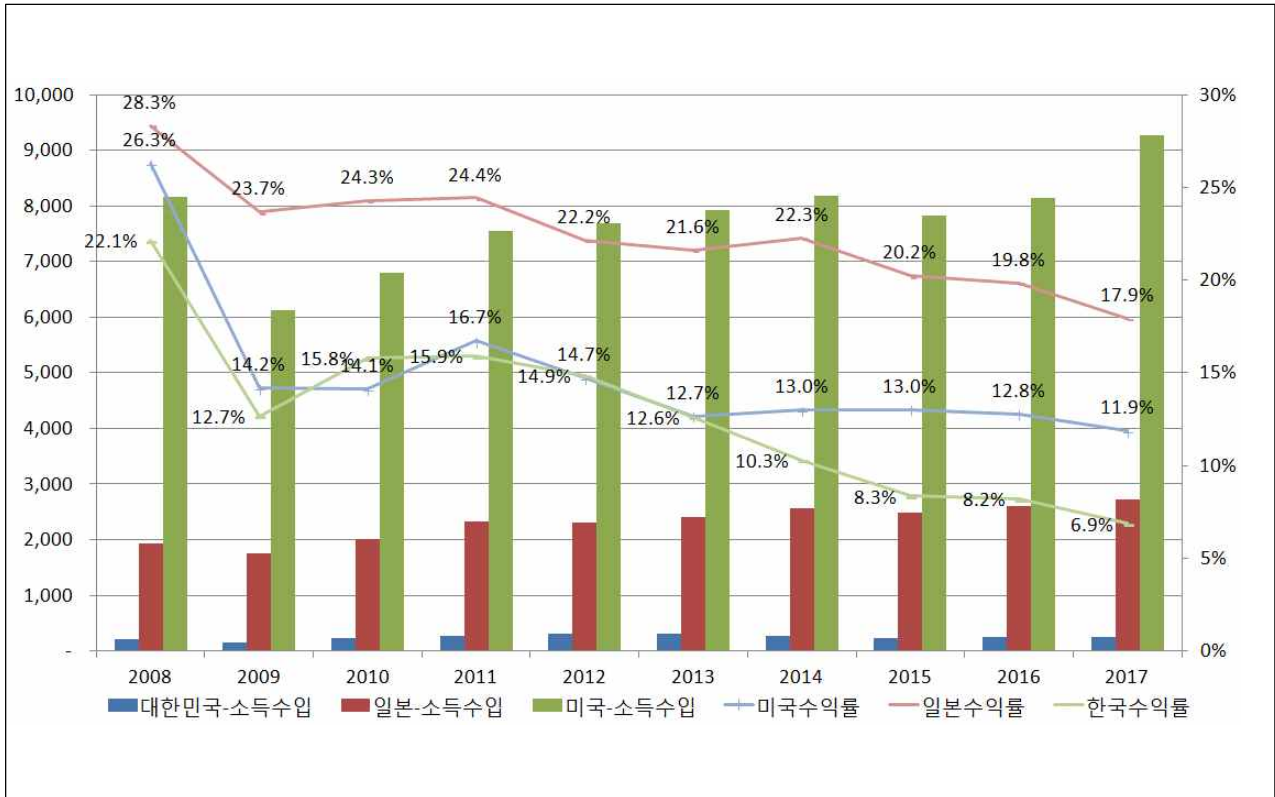
12) 무역의존도 : 수출입 / GNI(국민총소득)

13)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되며, 본원소득은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 이자, 근로소득으로 구성



## 최근 10년간 한국, 일본, 미국의 본원소득수입<sup>14)</sup>과 해투자액 대비 수익률

(억 달러)



- 소득과 지출을 합한 미국의 '17년 본원수지(Primary Income)는 2,170억 달러 흑자, 일본은 1,769억 달러 흑자를 기록, 한국의 본원수지 흑자 122억 달러는 경제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낮은 수준
- 향후 한국의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본원소득 수지가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해외직접투자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및 기업의 투자우선 순위 고려 필요성 상승
-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시장 진출·선진기술 확보 목적의 M&A 투자와 수익목적의 금융보험업 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전략 재편 필요

14) 본원소득수입(Primary Income receipts)은 해외투자의 결과 수취한 배당, 이자, 근로소득으로 구성

- UNCTAD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투자와 선진국에 대한 정보통신, 컨설팅, 의약품 등 고도 서비스 산업 부문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2017년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사업전개 조사 보고”<sup>15)</sup>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진출 유망 국가는 중국이 ‘12년 이후 5년 만에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순

<참고자료>

1.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2.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

15) 본 설문 대상은 제조업종으로 3개 이상의 해외현지법인(생산법인 1개 이상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로, 2017년에는 조사 대상 1,001개사 중 602개사가 응답(17.12월 발표)

<참고자료 1>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억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미	국	2,626	1	2,807	1	3,423	1
일	본	1,342	5	1,452	4	1,605	2
중	국	1,457	4	1,962	2	1,246	3
영	국	△835	-	△225	-	996	4
홍	콩	718	9	597	8	828	5
독	일	1,082	6	515	9	823	6
캐	나	678	10	736	5	770	7
버진아일랜드(영국령)		832	8	367	12	708	8
프	랑	532	12	632	7	581	9
룩	셈	282	16	444	10	412	10
스	페	505	13	381	11	408	11
러	시	271	18	270	16	360	12
대	한	238	19	300	13	317	13
케	이	620	11	154	21	304	14
싱	가	311	15	279	15	245	15
스	웨	144	25	59	31	243	16
네	덜	1,941	2	1,721	3	233	17
벨	기	398	14	223	18	209	18
태	국	17	46	124	24	193	19
아	일	1,683	3	294	14	186	20
U	A	167	22	130	23	140	21
대	만	147	23	179	19	114	22
인	도	76	30	51	32	113	23
오	스	70	31	△35	-	109	24
덴	마	94	29	94	25	100	25
쿠	웨	54	36	45	33	81	26
남아프리카공화국		57	33	45	35	84	27
이	스	110	26	131	22	63	28
말	레	106	28	80	28	58	29
사우디아라비아		54	35	89	26	56	30

<참고자료 2>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억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미	국	4,658	1	4,571	1	2,754	1
중	국	1,356	4	1,337	3	1,363	2
홍	콩	1,744	3	1,174	4	1,043	3
브	라	643	7	580	7	627	4
싱	가	628	8	775	6	620	5
네	덜	696	6	858	5	580	6
프	랑	454	11	352	16	498	7
호	주	205	18	478	9	464	8
스	위	819	5	483	8	410	9
인	도	441	12	445	11	399	10
버	진	257	16	435	12	384	11
케	이	524	9	399	13	374	12
독	일	333	14	170	21	347	13
멕	시	349	13	300	18	297	14
아	일	2,158	2	145	22	290	15
러	시	119	26	372	15	253	16
캐	나	456	10	373	14	242	17
인	도	166	24	39	54	231	18
스	페	196	20	197	20	191	19
이	스	113	30	119	29	190	20
이	탈	196	19	222	19	171	21
대	한	41	48	121	28	171	22
스	웨	69	41	122	27	154	23
영	국	327	15	1,961	2	151	24
콜	롬	117	29	139	24	145	25
베	트	118	27	126	26	141	26
아	르	118	28	33	61	119	27
터	키	177	23	129	25	109	28
일	본	338	57	114	32	104	29
U	A	86	34	96	36	104	30